



진주교 서울대교구
구로3동 성당

주보성인 :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08375 구로구 디지털로 27길 82 www.guro3cc.com
☎ 사무실 857-8541 팩스 857-8549

주 임 신 부 백 승 준 시몬
보좌 신 부 정 혁 요셉 (청년부)
강 봉 목 마티아 (유·초·중·고등부)
박 경 석 보스코 수사 (사회사목)

전 교 수 녀 윤 옥 주 올리아 (원장)
이 민 자 미란다 (중·고등부/청년부)
최 상 순 수산나 (유·초등부)

총 회 장 최 석 준 마르코
연령회 회장 우 성 식 바오로 010-2899-4654

모임

단 체 명	일 시	장 소
울뜨레아	2월 25일(일), 11:40	강 당
성체분배사회	2월 25일(일), 교중미사후	성체조배실
자녀를 위한 기도	3월 01일(금), 19:40	1교실
성모성심회	3월 02일(토), 17:30	교육관
위령봉사회	3월 03일(일), 11:40	강 당
M.E.	3월 03일(일), 11:50	6교실
제대헌화회	3월 05일(화), 10:30	2교실

성시간 및 성체강복

- 일 시 : 3월 1일(금), 저녁 미사 후
- 첫 토요일 성모 신심 미사**
 - 일 시 : 3월 2일 / 오전 6:30
 - 미사에 참석하신 분들에게 ‘도움이신마리아’ 장엄 강복 및 성수 예식을 합니다.

사순 특강 (수요일 저녁 20:00)

일 자	제 목	강 사
3월 06일	주님과 함께 걷는 사순시기 (친교)	김영선 루치아 수녀님
3월 20일	주님과 함께 걷는 사순시기 (참여, 선교)	(마리아 정교자 프란치스코회)

2024년 첫영성체 교리 안내

- 대상: 첫영성체를 하지 않은 3~6학년 어린이(2024학년)
- 일정: 3/2~6/01, 첫영성체: 6/02(일)
- 교리: 소성전 교육관(토, 14:00~15:30)
- 문의: 김국화 교사 010-5336-2802(문자로 문의)

알림

- 오늘은 오라토리오를 위한 2차 헌금 있습니다.
- 살레시오와 꿈(QM) 후원미사 3월4일(월), 오전10시
- 3월 병자 영성체는 지역별로 있습니다.

예비신자 교리반 신청

- 주일반(일, 오전 9시), 평일반(화, 오후 8시)
- 사무실에서 신청받습니다.

십자가의 길 (월~금요일 아침, 저녁)

- 사순 기간 동안 매일 아침(05:50), 저녁(18:20) ‘십자가의 길’ 전례 담당은 전례 봉사자가 합니다.

‘십자가의 길’ 담당구역 *

2/26(월)	2/27(화)	2/28(수)	2/29(목)	3/01(금)
9구역	10구역	11구역	12구역	13구역
3/04(월)	3/05(화)	3/06(수)	3/07(목)	3/08(금)
14구역	15구역	16구역	17구역	18구역
3/11(월)	3/12(화)	3/13(수)	3/14(목)	3/15(금)
19구역	20구역	21구역	22구역	23구역

목주기도 10억단 바치기 운동

- 지향 : 서울 세계청년대회 준비
- 목주기도 10단에 목주알 1개를 봉헌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 봉헌함은 성전 입구 우측에 있습니다.

다음 주일(3/3) 국수잔치 및 청소 담당

국수잔치	5구역	청 소	21구역
------	-----	-----	------

우리들의 정성(2월 14일 ~ 20일)

교 무 금	6,863,000원
주일헌금	5,242,000원
유숙종20만원 이순규10만원 양옥순10만원	
김종란25만원 이지현20만원 장재원20만원	
홍민자 2만원 김창현20만원 심정순 5만원	
백송자10만원 김중성 5만원	
감사헌금	

교중미사 전례봉사자 명단

월 일	해 설	복 사	독 서
2/25	이영민	오성한	김진수 안상록 권태희
3/03	손진희	조홍한	김영균 장익근 민옥경

성체 분배자 명단

월 일	토요일	토요일	토요일	토요일	토요일
월 일	토요일	토요일	토요일	토요일	토요일
2/25	장익근	하재민	오광운	최석준	박용환
3/03	최영만	김영배	하재민	최승일	오광운

화답송



나는 주님앞에서 걸어가리라 살아 있는 이들의 땅에서 걸으리라

교무금 입금 계좌번호 : 우리은행 129-05-001894 예금주 :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
(※ 입금인은 교무금 책정자 이름으로 적어 주세요.)

“찬미 받으소서”- 공동의 집을 돌보는 것에 관한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회칙

69. 우리는 이 땅의 재화를 책임 있게 사용해야 하고, 또한 다른 생명체들도 하느님 보시기에 고유한 가치가 있음을 깨달을 것을 요청받습니다. “동물은 단순히 생존함으로써도 하느님을 찬미하고, 하느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업적으로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고유한 존엄과 지성을 지녔기에 피조물과 그것의 고유 법칙을 존중할 것을 요청받습니다. 이는 “주님께서 지혜로 땅을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마치 다른 피조물들이 그 고유한 가치가 없고 인간이 마음대로 다룰 수 있거나 한 듯이 인간의 이익에 완전히 종속되어 있다고 단순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독일 주교들은 다음과 같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른 피조물들에 관하여 “**유용성**보다는 **존재**가 우선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왜곡된 인간 중심주의를 매우 분명하고 강력하게 비판합니다. “피조물은 저마다 고유한 선과 완전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저마다 고유한 존재를 지니기를 하느님께서 바라신 다양한 피조물들은, 저마다 고유한 방법으로 하느님의 무한한 지혜와 선의 빛을 반영합니다. 이 때문에 인간은 각 피조물의 고유한 선을 존중하여 …… 사물의 무질서한 이용을 피해야 합니다.”

70.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시기심에 불탄 카인이 어떻게 자기 아우를 상대로 극단적인 불의를 저지르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 불의는 결국 카인과 하느님의 관계, 그리고 카인과 그가 쫓겨난 땅의 관계를 망쳐 버립니다. 이는 하느님과 카인의 극적인 대화에서 분명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네 아우 아벨은 어디에 있느냐?” 카인이 모른다고 대답하자, 하느님께서 추궁하며 말씀하십니다. “네가 무슨 짓을 저질렀느냐? 들어 보아라. 네 아우의 피가 땅바닥에서 나에게 울부짖고 있다. 이제 너는 저주를 받아, ……땅에서 쫓겨날 것이다.” 내가 책임지고 돌보고 보호해야 할 내 이웃과 바른 관계를 이루어 유지해야 하는 의무를 저버리면, 나 자신, 다른 이, 하느님, 지구와 각각 맺은 관계를 망쳐 버리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관계를 소홀히 하면, 정의가 이 땅에 존재하지 않게 되면, 삶 자체가 위험에 빠지게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이는 정의와 평화의 조건을 계속 충족시키지 못하는 인류를 하느님께서 쓸어버리시겠다고 경고하시는 노아의 이야기에 나타납니다. “나는 모든 살덩어리들을 멸망시키기로 결정하였다. 그들로 말미암아 세상이 폭력으로 가득 찼다.” 상징으로 가득 찬 이러한 오래된 이야기들은 이미 오늘날 우리가 공유하는 확신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곧 모든 것은 서로 관계를 맺고, 우리 자신의 삶과 자연과 맺은 관계를 올바르게 돌보는 것은 형제애, 정의, 다른 이에 대한 충실함과 떼어 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